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심선숙, 방미란*
경동대학교 간호학부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Sunsook Sim, Miran Bang*

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W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은 평균 4.42점(범위 1-6점), 대인관계는 평균 3.70점(범위 1-5점),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33점(범위 1-5)으로 중간수준 이상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는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r=.506, p<.001$),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r=.58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증도의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인성의 행동 영역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F=75.28, p<.00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개발 시 간호대학생의 인성 특성을 고려할 것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college life. A self-report type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80 nursing students in a city between May 30 and Jun 09 of 2016.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character ($r=.506, p<.001$) as well as betwee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personal relations ($r=.585, p<.001$)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in the medium level. With improved personal relationships and with higher level of character, nursing students appear to more successfully adjust to college life. It was also found that an explanatory power for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these factors is 46% ($F=75.28, p<.001$).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enhance the adjustment process to college life.

Keywords : Adjustment,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운영으로 인한 간호업무환경의 많은 변화[1]와 인성이 갖추어진 인재상을

요구하는 사회 환경은 간호교육에서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2].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인성적 자질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3]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대인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Corresponding Author : Miran Bang(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Tel: +82-33-738-1407 email: bmr@kduniv.ac.kr

Received August 24, 2016

Revised (1st September 27, 2016, 2nd October 21,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대[4].

인성(人性)이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5]을 의미하며, 인간성, 인격, 성품, 기질, 사람됨됨이, 인간의 본성 등의 용어와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다[6]. 간호에서의 인성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 이는 Nightingale이 인간을 간호하기 위해 좋은 인성은 필수 조건이라고 교육한 것에서부터 강조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수준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1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미리 경험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간호사로서 대상자들과 원만하고 유익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1].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고[3,12,13], 낮은 의료인과 간호대상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은 높은 수준이며[14]이러한 대인관계는 학과 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에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다양한 상황의 간호현장에서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 간호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전공 특성상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기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고, 국가고시에 대한 중압감과 과중한 학습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학과 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6]. 또한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은 다양한 상황의 대상자들을 접촉함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소진, 이직 등[17]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인을 대하는 자세인 배려, 성실함, 타인 존중 등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대상자들을 간호하고 접촉해야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는 학부 때부터 교육을 통해 꾸준히 훈련·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W시에 소재한 일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다중회귀분석에서의 중간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로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18]. 탈락율을 반영하여 총 19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10명을 제외한 180명(회수율: 94.7%)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성

인성은 Lee등[19]이 개발한 대학생용 바롬인성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60개 문항, 3개의 하위 영역 즉, 인지 영역, 정의 영역, 행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영역은 23개 문항(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가치를 알 7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반성적 의사결정 3문항, 자기이해 3문항,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의 영역은 25문항(양심 5문항, 자기존중 4문항, 감정 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 영역 12문항(의지 및 능력 7문

항, 습관 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6점까지 총점은 60-3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2.3.2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20]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 7개의 하위 영역(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만족스러운(또는 원만하지 못한)편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는(또는 매우 원만한)편이다’ 5점까지 총점은 25-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Jeong과 Park[22]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개의 문항, 5개의 범주(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 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점은 19-9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W시에 소재한 일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본인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수업시간 외에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와 개인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실명이 없는 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

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거, 보관하여 설문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종료 1년 후 설문지는 분쇄 폐기할 예정이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Mann-whitney U-test와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155명(86.1%)으로 대부분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자발적 동기가 101명(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의 용이성 63명(35.0%)의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10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을 대학생활 바깥인성척도로 측정할 결과 전체 평균은 4.42점(범위 1-6점)으로 중간 이상의 인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3개 하위 영역 중 ‘정의 영역’이 평균 4.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 영역’ 4.47점, ‘행동 영역’ 4.11점 순이었다. 대인관계 전체 평균은 3.70점(범위 1-5점)으로 중간 이상의 대인관계를 나타내었으며 7개 하위 영역 중 ‘이해성’이 평균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감성’ 3.87점, ‘친근감’ 3.83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or M
Gender	Male	25(13.9)
	Female	155(86.1)
Religion	Yes	63(35.0)
	No	117(65.0)
Club	Yes	64(35.6)
	No	116(64.4)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63(35.0)
	Score	4(2.2)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11(6.1)
	Aptitude	101(56.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10(61.1)
	Moderate	68(37.8)
	Dissatisfied	2(1.1)
Living	Family	74(41.1)
	Dormitory	83(46.1)
	Alone	19(10.6)
	Others	4(2.2)
Counseling	None	7(3.9)
	One	52(28.9)
	More than two	121(67.2)
Levels of health	Good	114(63.3)
	Not bad	63(35.0)
	Bad	3(1.7)
Age (yr)		20.11

순이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 적응 전체 평균은 3.33점 (범위 1-5)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5개의 하위 영역 중 ‘학업활동’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심리’ 3.76 점, ‘대인관계’ 3.13점 순이었다(Table 2).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족도($\chi^2=12.23, p=.002$)이었으며 사후검증결과 ‘만족’이 ‘보통’보다 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족도($\chi^2=12.44, p=.002$)와 건강상태($\chi^2=17.84, p<.001$)이었으며 사후검증결과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및 ‘불만족’보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나쁨’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

Table 2.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N=180)

Variables (range)		M±SD	
Character (1-6)	Knowing factor	Moral awareness	4.60±0.68
		Knowing moral value	4.38±0.66
		Moral reasoning	4.51±0.74
		Reflective decision making	4.52±0.75
		Self-understanding	4.40±0.73
		Awareness of self-initiated life	4.46±0.81
	Feeling factor	Sub-total	4.47±0.60
		Conscience	4.74±0.76
		Self-respect	4.32±0.77
		Empathy	4.69±0.63
		Loving the good	4.81±0.77
		Self-control	4.21±0.76
	Behaving factor	Community spirit	4.19±0.71
		Sub-total	4.52±0.58
		Will and competence	4.24±0.64
		Habit	3.92±0.87
	Sub-total		4.11±0.67
	Total		4.42±0.56
Interpersonal Relations (1-5)	Satisfaction	3.70±0.57	
	Communication	3.67±0.62	
	Trust	3.57±0.55	
	Friendliness	3.83±0.60	
	Sensibility	3.87±0.62	
	Openness	3.50±0.57	
	Understanding	3.92±0.56	
	Total	3.70±0.44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1-5)	Academic activity	3.82±0.50	
	Career ready	3.06±0.67	
	Individual psychology	3.76±0.59	
	Interpersonal relationship	3.13±0.65	
	Social experience	2.76±0.81	
	Total	3.33±0.44	

족도($\chi^2=15.75, p<.001$)와 건강상태($\chi^2=12.55, p=.002$)이었으며 사후검증결과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보통’보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보통’보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인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r=.506, p<.001$), 대인관계($r=.58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s	Categories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M±SD	U/χ ²	p	Scheffe	M±SD	U/χ ²	p	Scheffe	M±SD	U/χ ²	p	Scheffe
Gender	Male	4.55±0.70	1777.00	.507		3.85±0.57	1543.50	.103		3.58±0.57	1358.50	.017	
	Female	4.4±0.53				3.68±0.42				3.30±0.41			
Religion	Yes	4.40±0.53	3681.00	.989		3.63±0.49	3166.00	.119		3.36±0.47	3421.00	.427	
	No	4.43±0.57				3.74±0.42				3.32±0.43			
Club	Yes	4.48±0.61	3294.50	.212		3.79±0.48	3161.00	.099		3.43±0.48	2998.00	.033	
	No	4.38±0.53				3.66±0.42				3.28±0.42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4.41±0.57	3.26	.516		3.68±0.46	5.97	.202		3.32±0.44	3.13	.536	
	Score	4.17±0.46				3.34±0.11				3.09±0.20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4.20±0.53				3.69±0.60				3.24±0.57			
	Aptitude	4.45±0.56				3.74±0.43				3.36±0.44			
	Others	4.73±0.00				3.96±0.00				3.58±0.0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4.52±0.53	12.23	.002	a>b	3.79±0.43	12.44	.002	a>b,c	3.44±0.44	15.74	<.001	a>b
	Moderate ^b	4.25±0.57				3.57±0.44				3.17±0.41			
	Dissatisfied ^c	4.38±0.51				3.56±0.51				3.32±0.07			
Living	Family	4.37±0.58	2.10	.551		3.71±0.44	.55	.908		3.34±0.43	2.73	.435	
	Dormitory	4.46±0.55				3.69±0.42				3.30±0.43			
	Alone	4.43±0.55				3.78±0.57				3.51±0.53			
	Others	4.32±0.43				3.59±0.55				3.14±0.51			
Counseling	None	4.52±0.52	.58	.748		3.46±0.50	2.15	.341		3.45±0.56	1.32	.516	
	One	4.40±0.49				3.68±0.43				3.28±0.40			
	More than two	4.42±0.59				3.73±0.45				3.35±0.46			
Levels of health	Good ^a	4.49±0.59	5.34	.069		3.81±0.41	17.84	<.001	a>c	3.42±0.47	12.55	.002	a>b
	Not bad ^b	4.29±0.48				3.53±0.45				3.17±0.35			
	Bad ^c	4.53±0.59				3.49±0.39				3.40±0.36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N=180)

	Interpersonal Relations r(p)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r(p)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585(<.001)	
Character	.485(<.001)	.506(<.001)

3.5 대상자의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고려되어야 할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자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도 모두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은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과 선택이유, 전공 만족도, 거주환경, 교수와의 상담 빈도, 건강상태를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

고 대상자의 인성, 대인관계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인관계($\beta=.44, p<.001$)와 인성의 하위 영역 중 행동 영역($\beta=.37, p<.001$)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행동 영역의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총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F=75.28, p<.001$) (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N=180)

Variables	β	t	p	VIF	tolerance
(Constant)		3.19	<.001		
Interpersonal Relations	0.44	7.35	<.001	1.177	0.850
Character -Behaving factor	0.37	6.20	<.001	1.177	0.850

F-value : 75.28 p-value : <.001 R² : 0.460 adj R² : 0.45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정도를 대학생활 바롬인성척도[19]로 측정한 결과 중간 이상의 인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위 영역의 인성 수준은 정의, 인지, 행동 영역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Kim[7]의 연구에서는 정의, 행동, 인지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 영역은 양심, 자기존중감, 감정이입, 선을 사랑, 자아 통제, 겸양을 의미하는데 두 연구 모두 정의 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으로서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 배려 등은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행동 영역 인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1학년 학생들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교육이 함께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중간 이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Lee와 Nam[23]의 결과와는 유사하였으며 Sim과 Ahn[24]의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인관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e와 Nam[23]의 연구에서 3,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대인관계를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인관계 기술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7개 하위 영역은 이해성, 민감성, 친근감의 순이었으며 Sim과 Ahn[24]의 연구에서는 이해성, 친근감, 민감성의 순으로 모두 이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인관계는 우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존감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5]를 볼 때 간호대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보통 수준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실시한 Han[2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Lee와 Eo[16], Kwag[27]의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28]의 결과보다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일반대학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Kim과 Jang[29], Han[26]의 연구에서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1학년이고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적어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학과 특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진로에 대해 탐색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보고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 등 대학생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중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하므로 학부 때부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학업 성취 강화를 위한 다양한 스터디그룹의 활성화, 멘토-멘터 프로그램 [30],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학업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의 적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및 직업 적응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는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31]는 대학생들의 셀프 리더십과 창의적 인성이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과 전공 또는 학업에 대한 만족도 간의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인성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26].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 만족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대인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k 등[3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학생이 대학생활을 불만족하게 하는 학생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이 전공 및 대학생활에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 만족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과 Lim[33]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취업에 대한 용이함, 졸업 후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여겨지며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oo[34]의 연구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여가활동에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건강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과중한 학업량,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병행으로 인한 빠듯한 학사일정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과 만족도, 학과 및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간호학과의 교과 외 과정에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인성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창의적 인성이 학습몰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Lee[35]의 연구결과를 볼 때 인성은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성격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36]를 살펴보았으며 인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간호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1]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19]. Park과 Ko[9]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교육, 대학의 사회봉사 참여 강화, 인터넷윤리에

대한 인성환경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절교육, 심리교육 및 인성함양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인성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정도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Song 등[15]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이수과 교과 외 활동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와 인성의 하위 영역 중 행동 영역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였다. 이 중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ong 등[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좋은 관계구축을 위해 스스로 대학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폭넓은 대외활동을 통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성의 하위 영역 중 행동 영역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지향적인 인성교육보다는 인성 역량을 길러가는 내실 있고 지속적인 실천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통해 생활속에서 인성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대학·지역사회연계 봉사동아리 활동을 실시하며 인문학 특강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바른 인성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대인관계와 인성의 하위 영역 중 행동 영역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

생의 대학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은 4.42점, 대인관계 3.70점, 대학생활 적응 3.33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족도이었으며,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전공 만족도와 건강상태이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인성 수준을 높이고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성 및 대인관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성과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 K. Lee & D. Y. Jung, "A study of nursing tasks,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hospitals with no guardian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 3, pp. 287-296,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3.287>
- [2]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21-3332, 2013.
- [3] H. S. Jeong, &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5, pp. 2635-2647, 2012.
- [4]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 [5]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2016,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eb site. (Available at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6]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focusing on Middle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9.
- [7] S. J. Kim,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3, no. 2, pp. 1-19,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2.1>
- [8] M. H. Seong, & E. J. Kim,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and their demand for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8, pp. 177-202, 2015.
DOI: <http://dx.doi.org/10.18850/JEES.2015.38.07>
- [9] S. J. Park, & K. H. Ko, "TA study on the personality educational method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11, no. 1, pp. 35-50, 2014.
- [10] J. H. Lee, M. S. Choi, & H. H. Park, "The effec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6, no. 2, pp. 205-220, 2009.
- [11] Thomas. R. K, *Health communication*, New York, Springer, 2006.
- [12] S. H. Kim, & G. H. Park,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1, pp. 375-393, 2010.
DOI: <http://dx.doi.org/10.15703/kjc.11.1.201003.375>
- [13] W. G. Kim, & H. I. Chung, "Effects of korean enneagram program on the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 4, pp. 393-404,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393>
- [14] H. J. An, & B. Y. Chung,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4-228, 2006.
- [15] H. S. Song, E. S. Na, Y. H. Jeon, & K. I. Ju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23, no. 1, pp. 72-81, 2016.
DOI: <http://dx.doi.org/10.21086/ksles.2016.03.23.1.72>
- [16] J. W. Lee, &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2, pp. 125-134,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2.125>
- [17] G. S. Yoon, & S. Y. Kim, "Influences of job stress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6, no. 4, pp. 507-516,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4.507>
- [18]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9] Y. S. Lee, H. Y. Kang, &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1, pp. 261-282, 2013.
- [20] A. Schlein, & B. G. Guerny,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1971.
- [21]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no. 2, pp. 195-203, 1980.
- [22] E. I. Jeong, &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 [23] M. R. Lee, & M. H. Na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509-517,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6.509>
- [24] H. S. Sim, & S. Y. Ahn, "The influence of ego state and interpersonal skil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269-275,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2.269>
- [25] M. Jung,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14-462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14>
- [26]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59-446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59>
- [27]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28] S. Y.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1, no. 1, pp. 93-115, 2010.
- [29] E. A. Kim, &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30] E. J. Shin & Y. S. Park,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ntoring program designed to assist nursing students adjust to life in college and strengthen their leadership 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595-460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595>
- [31] S. B.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and innovative behaviour and study satisfa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31, no. 4, pp. 611-638, 2012.
- [32] S. H. Sok, D. S. Shin, & K. B. Kim,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 475-481, 2006.
- [33] J. Y. Ahn, & H. K. Lim, "College adjustment of fe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4, no. 1, pp. 233-239, 2005.
- [34] C. W. Kim, & S. L. Yoo,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stress level, and adaptation to campus life of education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8, no. 4, pp. 157-168, 2006.
- [35] G. E. Lee, "Connec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creative personality and immersion",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vol. 10, no. 2, pp. 45-59, 2010.
- [36] M. R. Lee, &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861-886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861>

심 선 숙(Sunsook Sim)

[정회원]



- 2015년 8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기본간호

방 미 란(Miran Bang)

[정회원]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 기본간호